

의료·요양 통합돌봄, 지자체 본사업 설명회 개최

- 대구·경북, 서울·강원, 인천·경기 등 6개 권역에서 실시(10.23~11.6)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10월 23일(목) 오전 10시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구·경북 지방자치단체 대상 본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.

「의료·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」은 이번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 과제*로 ‘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’을 위해 시·군·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. 2026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**에 참여하여 본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.

* 국정과제 78번 ‘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’

** '23.7월부터 실시, 229개 지자체 참여 중 (예산지원형 12개소, 기술지원형 217개소)

이번 설명회는 본사업 시행 5개월을 앞두고, 의료·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 2026년 실행계획서 작성 방향과 본사업 지침을 교육하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되었다.

1부에서는 통합돌봄 정책 개요, 시도 및 시군구 실행계획서 작성방식, '25년도 우수지자체 사례 공유 등 지자체가 수립하여야 할 실행계획서 작성 관련 사항을 안내하였으며, 2부에서는 노인·장애인 대상자별 사업추진 절차 등 세부 지침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.

보건복지부는 이날 ①대구·경북 권역을 시작으로 11월 6일(목)까지 총 6차례*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.

* ②10월 27일(월) 서울·강원 ③10월 28일(화) 인천·경기 ④10월 31일(금) 대전·세종·충북·충남·제주 ⑤11월 4일(화) 부산·울산·경남 ⑥11월 6일(목) 광주·전북·전남

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·요양·돌봄 통합지원단장은, “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, 현장실행력 향상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등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준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 라고 언급하며, “본사업 시행 전, 지자체가 안정적인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” 라고 밝혔다.

- <붙임> 1. 통합돌봄 담당자 역량강화 지자체 설명회
2. 「2025년도 의료·요양·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」 개요

담당 부서	노인정책관 의료·요양·돌봄통합지원단	책임자	과 장	장영진 (044-202-3030)
		담당자	팀 장	박준형 (044-202-3041)
			사무관	이종범 (044-202-3042)



□ **개요**

- (목적) 본사업 시행 전 지자체 통합돌봄 역량 강화
- (일정·장소) '25. 10~11월(6회), 한국기술센터 등
 - (상세일정) ①10.23.(목) 대구·경북 ②10.27.(월) 서울·강원 ③10.28.(화) 인천·경기
 ④10.31.(금) 대전·세종·충북·충남·제주 ⑤11.4.(화) 부산·울산·경남
 ⑥11.6.(목) 광주·전북·전남
- (대상) 시도·시군구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등
- (내용) 통합돌봄 사업개요, 사업계획 작성요령, 우수 지자체 사례, 사업 세부지침, 장애인 사업지침, 질의응답 등
- (참석규모) 약 500명

□ **진행순서**

시간		주요 내용	담당
10:00 ~ 10:02	2'	• 개회	한국보건복지 인재원
10:02 ~ 10:05	3'	• 인사말	보건복지부 통합지원단장
10:05 ~ 11:15	70'	• 사업개요, 사업계획 작성 방법 안내	보건복지부 사무관
11:15~11:30	15'	• 시범사업 우수사례 발표 ①경북 의성(10.23) ②강원 춘천(10.27) ③경기 부천(10.28) ④충북 진천(10.31) ⑤경남 김해(11.4) ⑥광주 북구(11.6)	지자체 담당자
11:30~12:00	30'	• 사업계획서 관련 질의응답	보건복지부
13:30~16:30	180'	• 공통 및 노인 세부지침 설명	건보공단 및 한국보건복지 인재원
16:30~17:30	60'	• 장애인 지침 설명	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

※ 세부 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◆ 「의료·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(돌봄통합지원법)」(24.3월 제정)
 → 現 시범사업(229개 지자체) → '26.3월 법 시행, 전국 적용

- (목적)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(Aging in place)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하여 제공
- (대상자) 노쇠, 장애, 질병,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, 장애인 등
- (지원내용) 보건의료(진료, 간호, 재활, 호스피스, 복약지도 등), 건강관리, 장기요양, 일상생활, 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
- (지원절차) 통합지원 ①신청 → ②조사 → ③판정 → ④지원계획 수립 → ⑤통합지원 제공 → ⑥모니터링
- (기반조성) 통합지원 절차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, 시군구에 전담조직 설치 및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
- 전담조직에서 노인, 장애인을 포함하여 통합지원 절차 운영

【 의료·요양·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】

